

형용사의 논항구조에 관한 연구*

이 영 헌
(조선 대학교)

Lee, Younghern. 1996. The Argument Structures of Adjectives, *Linguistics* 4, 231-24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arguments structure of adjectives. First, it is argued that the adjectives such as *k+ta*(large) and *jakta*(small) in Korean are a two-place-predicate semantically. Second, the argument structure of *k+ta* is quite different from the one of *katta*(same) even if they can be considered as 2-place-predicates. Third, an expression consisting of *k+ta* and it's internal argument can be treated as a predication or a functor expression, not a proposition. If it is proved that the construction consisting of predicate and it's internal argument is a functor expression, then the multi-subjects in Korean can be divided into a external arguments and internal arguments. Forth, introducing a comparative operator COMP, we can solve the conflict of external argument structure and the internal argument structure of the adjectives *k+ta*(large), *jakta*(small), and so on. (Chosun University)

1. 문제의 제기

형용사에 대한 논의는 통사적으로는 어떤 기능을 갖느냐와 의미적으로는 어떤 속성을 갖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영어는 물론이고 한국어(이하 국어라 칭한다)에서는 한정적으로 쓰이는 형용사는 서술적으로도 쓰이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다¹.

- (1) a. a complete victory \Rightarrow the victory is complete.
b. 예쁜 꽃 \Rightarrow 꽃이 예쁘다.

* 이 논문은 1995년도 조선대학교 교내 지원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¹영어에서는 형용사에 따라 한정적 기능을 갖는 경우와, 서술적 기능을 갖는 경우가 다를 수 있다.

- (i) the patient was asleep \nRightarrow * the asleep patient.
(ii) an utter fool \nRightarrow *the fool is utter.

(i)의 asleep은 오직 서술적으로만 쓰일 뿐 한정적으로 쓰이지 못하는데 반해서 (ii)의 utter는 서술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한정적으로만 쓰이는 예이다..

예컨대 (1)의 complete나 예쁜과 같은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서술적으로도 쓰인다. 이렇듯 영어의 몇몇 형용사를 제외하고는 영어나 국어의 형용사들은 서술적 기능과 한정적 기능의 넘나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한정적 기능을 갖는 형용사는 서술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던 국어의 형용사 가운데는 이들의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2) a. 큰 키 \Rightarrow 키가 크다
 b. 작은 목소리 \Rightarrow 목소리가 작다
 (3) a. 작은 코끼리 \Rightarrow *코끼리가 작다.
 b. 큰 동물 \Rightarrow *동물은 작다.

(2)에서 보는 것처럼 크다, 작다 등의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술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나 (3)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형용사는 서술적으로 쓰일 경우 비문법적 문장이 유도된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형용사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는 형용사를 성질, 상태, 심리²형용사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형용사의 의미적 하위범주 설정에 관심이 모아졌을 뿐 형용사의 결합관계와 수식관계를 간과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국어의 크다, 작다나 영어의 small, large와 같은 형용사는 의미적으로는 상태를 나타내는 1항 함수표현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들 형용사를 1항 함수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형용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명시적 기술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 (4) a. 철수는 크다.
 b. 철수는 키가 크다.
 c. 철수는 몸집이 크다.
 d. 철수는 . . . 이 크다.

(4a)의 철수가 크다는 표현을 적격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는 주어진 맥락에 따라 (4a)의 의미는 (4b)나 (4c)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형용사가 갖는 화맥적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이들 형용사의 특성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용사가 한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되는 경우가 있다.

²Keenan and Faltz(1985)에서는 scalar adjective, intersecting adjective, conjunctural adjective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5) a. 큰 개미는 작은 동물이다.
 b.* 작은 개미는 큰 동물이다.
- (6) a. A small elephant is a large animal.
 b.* A small elephant is a small animal.

크다나 작다, 그리고 large나 small과 같은 형용사가 한정적으로 쓰일 경우, (5b)와 (6b)도 문법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a)와 (6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5b)와 (6b)는 비문법적이다.

이렇듯 동일한 형용사가 한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서술적으로 쓰일 수 있으면서도 경우에 따라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되는 것은 형용사가 갖는 특성이 다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들 형용사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이 무엇이나를 밝히는 것이 형용사 기술의 일차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본고는 형용사의 수식 대상에 따른 형용사 기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형용사의 논항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쓰이든 서술적으로 쓰이든 간에 의미적으로는 피수식어나 피서술어의 속성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1b)의 예쁜이 수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서술어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은 예쁜이 지시하는 외연에는 피수식이 꽃이 지시하는 외연이 들어 있는 경우이다.

- (7) 예쁜 꽃 ⇒ 예쁘다(꽃)

형용사 예쁘다가 내포할 수 있는 것들은 꽃, 나비, 학생 등 대단히 많은 명사의 외연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들 명사는 형용사의 논항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용사 예쁘다는 명사 꽃을 논항으로 취하는 1항 함수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형용사를 1항 술어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8) a. 밤과 같은 어둠이 왔다.
 b. *같은 어둠이 왔다.
- (9) a. 이 책과 비슷한 책을 샀다.
 b. *비슷한 책을 샀다.

(8)과 (9)의 같은이나 비슷한³ 등의 형용사는 2항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즉

(8b)와 (9b)가 비문법적인 것은 형용사 같은의 논항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10) a. 같다(x, y)
 b. 비슷하다(x, y)
 (11) a. *같다(y)
 b. *비슷하다(x)

즉 (10)에서 보는 것처럼 같다, 비슷하다는 두 개의 논항 x와 y를 취할 경우에만 문법적이다. 만일에 이들 형용사가 하나의 논항을 취하는 경우에는 (11)에서 보는 것처럼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된다. 이러한 사실은 형용사가 운데 같다, 비슷하다 등은 2항 술어임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형용사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경우, 이들 논항이 동일한 성질의 것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내부논항과 외부논항

형용사가 두 개의 논항 x와 y를 갖는 경우, 논항 x, y가 대등한 특성을 갖느냐는 것이다. DeBruin and Scha(1988)에 의하면 관계명사(relational nouns)는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s)⁴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논항이란 함수자 표현의 범주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논항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예컨대 명사구의 주어는 명사구 내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명사의 논항이 되는 경우이다. 또한 문장의 주어는 동사구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동사구의 논항이 되는 요소를 말한다.

- (12) a. the doctor's examination of the patient
 b. The doctor examines the patient.

(12a)는 (12b)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12a)의 the doctor는 명사구의 주어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의미상으로는 examination of the patient라는 명사구의 논항과 같다. 또한 (12b)의 the doctor는 동사구 examines the patient의 주어이며, 동사구 속에 있지 않지만, 동사구의 논

³서정수(1996)에서는 같다, 비슷하다 등의 형용사를 특수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을 2항술어로 간주하고 있지는 않다.

⁴외부논항에 관한 논의는 Edwin Williams (1980), "Predication" in *Linguistic Inquiry*, 11-1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항이 된다. 이렇듯 외부논항이란 동일범주의 최대 투사(maximal projection)밖에 나타나는 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반해서 내부논항은 명사구 최대 투사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최대 투사밖에 나타날 수도 있다.

- (13) a. A new book about syntax appeared last year.
 b. A new book appeared last year about syntax.

(13a)에서 보는 것처럼 about syntax는 book에 대한 내부논항으로써 명사구 a new book about syntax 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13b)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구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일 때 형용사에 있어서도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을 구별할 수 있다. Ingrai and George(1993)에 의하면, 형용사의 수식관계는 외부논항을 갖는 경우와 보충어(complement)⁵를 갖는 경우로 구별하고 있다.

- (14) a. Anna is happy.
 b. We all regard her as quite competent
 (15) a. How afraid of snakes is he?
 b. How certain that John is guilty are you?

(14)의 명사구 Anna나 her는 각각 형용사 happy와 competent의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이 된다. 즉 의미상으로 이들 명사는 형용사의 논항이 되지만 통사적으로는 이들 형용사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부논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반해서 (15)의 snakes나 that John is guilty는 각각 형용사 afraid나 certain의 최대 투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어(complement)로 간주하고 있다. 즉 외부논항과 보어의 분류 기준은 이들 형용사와 논항이 통사적으로 형용사의 최대 투사구조 내에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렇듯 형용사가 취하는 논항을 통사적 특성에 따라서 외부논항과 보어로 구분하고 있으나, 외부논항이든 보어이든 간에 형용사를 서술어로 간주한다면 의미적으로는 이들 요소는 형용사가 취하는 논항이 된다.

⁵Ingrai and George(1993)에서는 보충어와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를 구분하고 있으나, 본 고에서는 보충어를 내부논항으로 간주한다.

- (16) a. Anna is happy.
 b. Happy(anna)
 (17) a. He is afraid of snakes.
 b. Afraid(he, snakes)

happy와 같은 형용사는 한정적으로 쓰이든 서술적으로 쓰이든 간에 하나의 논항만을 갖는 이른바 1항 서술어라고 할 수 있다. 통사적으로도 (16a)의 happy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에, 명사구 Anna는 형용사의 최대투사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happy의 외부논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7a)의 afraid는 2항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afraid의 제1 논항은 He이고 제2 논항은 snakes가 된다. 이 경우에서도 He는 형용사 afraid의 최대투사밖에 있으므로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snakes는 형용사의 최대투사 안에 있으므로 내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논항표현이 최대투사 안에 있는 경우, 이들 요소를 형용사의 내부논항이라고 한다면 최대투사밖에 있는 요소를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에 대한 구별은 다음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 (18) a. John loves Mary.
 b. Love(j, m)
 (19) a. $\langle j, m \rangle \in \{ \langle x, y \rangle \mid x \text{ loves } y \}$
 b. $j \in \{ x \mid x \text{ loves } Mary \}$

전통적으로 love와 같은 동사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2항 술어로 간주하였다. 즉 (18a)의 의미를 나타내는 논리식은 (18b)와 같이 쓸 경우에 love와 같은 타동사를 2항 술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논항 j와 m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8a)의 의미를 집합관계로 나타내면 (19)처럼 쓸 수 있다. 즉 (19a)는 두 개의 논항 j와 m의 순서쌍이 사랑하는 개체들의 집합 속에 들어 있는 경우로 나타낸 것이다.

Cooper(1984)에서는 이러한 2항 관계를 1항관계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19a)나 (19b)는 (18a)에 대한 동일한 의미표시이지만, 전자는 2항관계로 나타낸 것이고, 후자는 1항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love를 독립적으로 간주하면 2항관계를 나타내는 서술어이지만, loves와 Mary가 결합된 loves Mary는 주어 John을 논항으로 취하는 1항 서술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Mary는 동사구 내에 나타나면서, love의 논항이 된다. 그러나 John은 동사구밖에 나타나지만, 동사구의 논항이 된다.

Love(j,m)에서 보는 것처럼 love가 j와 m을 논항을 취할 때 j와 m중에서 어느 것이 내부논항이 되느냐는 것이다. 통사적으로도 Mary는 love의 목적어으로써 동사구의 한 구성요소를 이룬다. 그러나 John은 문장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동사구의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John은 외부논항이 되고, Mary는 love의 내부논항이 된다. 이렇듯 영어에 있어서는 하나의 서술어가 2개의 논항을 가질 때, 다음과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 서술어(외부논항, 내부논항)

이러한 논의는 국어의 형용사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다.

- (21) a. 저 책과 같은 이 책을 샀다.
- b. 이 공책과 비슷한 공책을 샀다.

(21)의 같은이나 비슷한은 각각 이 책과 공책을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용사이지만, 이들 피수식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11)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문법적이라는 사실은 바로 2항 술어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에 같은이 2항 술어라고 한다면, 논항이 되는 요소는 이 책과 저 책이 된다.

(22) 같다(저 책, 이 책)

그러나 같다가 저 책과 이 책이라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질 때 어느 것이 내부논항이 되느냐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용사의 최대투사 안에 있는 요소가 내부논항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형용사 같은의 수식구조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3) [저 책] 과 [같은 이 책]

접속사 과가 접속하는 피접속 요소는 동일범주의 표현이어야 한다. (23a)에서 보는 것처럼 접속사의 과의 논항은 저 책과 같은 이 책이 된다. 이 경우, 이 책은 형용사 같은의 수식영역 속에 있게 된다. 따라서 같다가 취하는 이 책은 내부논항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한정적 표현을 서술적으로 바꾸어 써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 (24) a. 키 큰 철수
- b. [[키 큰] [철수]]
- c. *[[키] [큰 철수]]

(24a)에서 보는 것처럼 키 큰이 철수를 수식할 수는 있지만, 키가 큰 철수를 수식할 수는 없다. 즉 키 큰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기 때문에 철수를 수식할 수 있는 반면에 큰 철수는 구성요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키가 큰 철수를 수식할 수 없다.

이러한 수식관계를 구성요소간의 관계로 바꾸어 써 보면 (25)와 같다.

- (25) a. 키 큰 철수
- b. 철수는 키가 크다. ⇒ 크다(철수, 키)
- c. *큰 철수는 키다. ⇒ 크다(키, 철수)

즉 키 큰이 하나의 구성요소라면 (25b)와 같이 쓸 수 있는데 반해서 큰 철수가 하나의 구성요소라면 (25c)와 같은 비문법적 관계가 유될 것이다. 따라서 키 큰은 하나의 구성요소이지만, 큰 철수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이러한 구성성분에 따른 수식어와 논항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정어의 수식영역을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 (26) a. 키가 안 큰 철수
- b. [[기가 안 큰] [철수]]
- c. *[[기가] [안 큰 철수]]
- (27) a. 키가 크지 않은 강아지
- b. [[기가 크지 않은] [강아지]]
- c. *[[기가] [크지 않은 강아지]]
- (28) a. 돈이 없는 철수
- b. [[돈이 없는] 철수]]
- c. * [[돈이] [없는 철수]]

우선 부정어 안은 형용사 크다, 작다를 수식할 수 있지만, 명사 철수나 강아지를 수식할 수는 없다. 즉 부정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것은 제2형 부정⁶에서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27)의 부

⁶여기서 말하는 제 2형 부정이란 {V, AD} + 아니 형태를 말하고, 제 1형부정은 아니 + {V, AD} 형식을 말한다.

정어 안은 비록 형용사 다음에 오더라도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어의 수식영역은 형용사에 국한된다. 그리고 형용사구 크지 않다가 명사 철수나 감아지를 수식한다면 (26c)나 (27c)와 같은 안 큰 철수, 크지 않은 감아지는 하나의 구성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 큰 철수, 크지 않은 감아지가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28)과 같은 잠재적 부정⁷표현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28b)의 문법성으로 비추어 볼 때, 없는 철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없지만, 돈이 없는은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만일에 키도 하나의 구성요소이고, 안 큰 철수도 하나의 구성요소라고 한다면 키 안 큰 철수는 복합 명사구이므로 이들 두 구성요소 사이에는 명제적 관계가 성립해야 할 것이다. 즉 명사 키와 명사구 크지 않은 감아지 사이에는 계사에 의한 연결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29) a. *안 큰 철수는 키다.

b. *키는 안 큰 철수이다.

(30) a. *크지 않은 감아지는 키다.

b. *키는 크지 않은 감아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와 (30)이 비문법적이라는 사실은 바로 안 큰 철수나 크지 않은 감아지는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크다, 안 크다, 크지 않다는 일차적으로 명사 키와 결합하여 키(가) 큰, 키(가) 안 큰, 키(가) 크지 않는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이루며, 이 경우 명사 키는 형용사구의 최대투사 속에 있기 때문에 키는 크다는 내부는 향이라고 할 수 있고, 철수, 감아지는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4. 내부논항의 특성

형용사 크다, 작다 그리고 영어의 small, large 등은 2항술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들 형용사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형용사가 취하는 논항에 따라 명시적 의미를 갖는 경우와 불투명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⁷잠재적 부정이란 국어의 모른다, 없다 등처럼 통사적으로는 명시적 부정어와 함께 쓰이지 않으면서도 부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31) a. 키가 크다.
- b. 철수가 크다

(31)의 두 문장은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일 수 있지만, (31a)의 의미는 명시적인데 반해서 (31b)의 의미는 불투명하다. 특히 (31b)가 문법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투명한 것은 크다는 논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31b)의 의미는 (4)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용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Cressewell(1973)에 의하면 small, large 등과 같은 형용사가 be 동사 다음에 오는 경우에는, "small for what?"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small이나 large의 명시적 논항을 갖지 않는 경우임을 말해 준다.

이렇듯 "small for what?"과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문맥에서 지시류(reference class)의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시류의 복원은 외부논항에 따라 달라진다.

- (32) a. This mouse is small.
- b. This mouse is small for a mouse

(32a)를 (32b)와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어인 mouse로부터 지시류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류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33) a. mice are small
- b. * mice are small for mice
- (34) a. Mice are small
- b. Mice are small for animals.

(33a)를 (33b)로는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주어인 mice가 지시류로 복원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32)의 mouse는 개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시류를 가질 수 있는데 반해서 (33)의 mice는 총칭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시류를 가질 수 없다. 즉 (32)의 this mouse가 지시하는 대상은 특칭적 개체임으로 다른 개체와의 변별적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33)의 mice의 경우에 있어서는 쥐라는 종류를 동일 종류와는 비교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변별적 차이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주어에 의하여 지시류를 복원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34b)와 같이 비교대상을 설정한다면 지시류가 복원된다. 즉 쥐라는 동물을 다

큰 동물 예컨대 개미나 코끼리에 비교한다면 변별적 차이를 갖는다. 따라서 Cresswell(1973)에서 제시한 지시류의 복원의 개념은 주어진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변별적 차이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연산자 비교구(比較口-COMP)라는 개념으로 전환한다면 (32)와 (33)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특칭적 의미를 갖는 쥐는 다른 쥐와의 비교를 통해서 크고 작음이 드러날 수 있다. 즉 쥐 가운데는 큰 쥐도 있을 수 있고 작은 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개체의 비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총칭적 의미를 갖는 쥐는 자체의 비교구를 가질 수 없지만, 쥐라는 동물과 다른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서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쥐라는 동물 전체는 비교구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더라도 작은 동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구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31b)가 갖는 중의적 의미를 명시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형용사 크다가 취하는 논항은 철수가 아니라 철수가 갖는 속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철수가 갖는 속성은 크거나 작거나 하는 등의 속성이 아니라 키라든가 몸집 등의 속성을 갖는다. 예컨대 철수와 영희의 직접적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철수와 영희가 갖는 속성의 비교는 가능하다. 따라서 철수는 영희보다 크다는 의미는 비교구인 키라든가 아니면 몸집의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형용사 크다 작다 등의 논항이 될 수 있다. Gamut(1991)에서도 small, large와 같은 형용사를 관계 형용사(relative adjective)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형용사는 일차술어 논리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35) a. Jumbo is a pink elephant.

b. $E(j) \wedge P(j)$

(36) a. Jumbo is a small elephant.

b.* $E(j) \wedge S(j)$

c. Small elephant(j)

(35)의 형용사 pink는 표준 일차술어논리로 나타낼 수 있지만, (36)의 small과 같은 관계 형용사는 일차술어 논리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small elephant에서 small은 elephant를 논항으로 취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Jumbo라는 실체물은 elephant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small의 속성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영어에서는 small, large와 같은 형용사들은 1항 술어로 간주하면서도 이들이 취하는 논항의 성질에 따라 수식관계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

다. 그런데 반해서 국어의 형용사 크다, 작다 등은 2항 술어이면서도 이들이 취하는 논항에 따라 1항 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음을 보았다. (31a)의 키가 크다는 문법적 표현이라는 점에서는 크다는 키를 논항으로 취하는 1항 함수표현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31a)의 표현은 완전한 명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31a)의 키가 크다는 표면상으로는 주부와 술부를 갖는 문장구조로 보이지만, 형용사 크다가 명사 키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논항구조의 적격문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 키가 크다는 마치 비가 오다와같은 명시적 외부논항을 결여하고 있는 서술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 따라서 (31a)가 완전한 명제적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37)과 같이 외부논항이 부가되어야 한다.

(37) 철수는 키가 크다.

뿐만 아니라, (31b)역시 완전한 명제적 표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바꾸어 말하면, (31b)가 문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상으로 불투명하거나 중의적 의미를 갖는 것은 크다는 내부논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1b)가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37)과 같이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크다는 형용사는 내부논항과 외부논항을 동시에 취하는 2항 술어임을 말해 준다. 즉 크다는, 작다 등이 들어 있는 표현이 문법적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항구조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38) 크다(x, y)

그러나 크다는, 작다 등을 2항 술어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형용사를 같다, 비슷하다와 동일한 범주의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39) a. 철수는 순이와 비슷하다. ⇒ 비슷하다(개체, 개체)

b.* 철수는 키가 비슷하다. ⇒ 비슷하다(개체, 속성)

(40) a.* 철수는 순이가 크다. ⇒ 크다(개체, 개체)

b. 철수는 키가 크다. ⇒ 크다(개체, 속성)

(39)에서 보는 것처럼 비슷하다는 논항의 범주가 동일하면 문법적인데 반해서 논항의 범주가 상이하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그러나 (40)에서 보는 것처럼 크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논항의 범주가 같으면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되는 데 반해서 논항의 범주가 서로 상이하면 문법적 표현이 유도된

다. 따라서 비슷하다, 크다 는 범주 상으로는 2항 술어이지만, 이들의 논항 구조는 서로 상이하다.

크다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은 (41a)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와 키라는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지만, 이들 논항이 동일 범주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37)과 같은 표현은 (41b)와 같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 (41) a. 크다(철수, 키)
- b. Tall(c, Y)
- (42) a. 크다 = {<x, N>|x는 Y가 크다}
- b. 크다 = {<x,Y>, <y, Z>}

그리고 크다는 외연은 (4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즉 크다는 내부논항은 개체의 속성이고, 외부논항은 개체표현이 된다. 즉 비슷하다는 논항은 개체의 순서쌍이라고 한다면, 크다는 논항은 개체와 속성의 순서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마치 내포동사와 seek와 외연동사 find의 차이와 같다. 예컨대 seek와 같은 내포동사의 외연은 (43a)와 같이 나타내고, find와 같은 외연동사는 (43b)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과 같다.

- (43) a. find = {<x,y>|x finds y}
- b. seek = {<a, N>|a seeks N}
- (44) a. 비슷하다 = {<x,y>| x와 y는 비슷하다}
- b. 크다 = {<x, Y>|x는 Y가 크다}

크다, 작다가 취하는 내부논항은 외부논항의 범주⁸와 다르다는 것은 이들 각각의 외연의 특성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보통 명사라 할지라도 명사에 따라 서로 그 외연이 다르다. 예컨대 학생의 외연은 [±MALE], [+HUMAN], [+ANIMATE], 동등의 많은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사 키의 외연은 학생의 외연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다. 즉 키의 외연은 [±TALL] 이라는 하나의 자질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색상을 나타내는 명사 RED의 외연은 [+RED]라는 하나의 속성을 갖

⁸ (i) a. 비슷하다 = <0,1,1>
 b. 크다 = <0,1,<0,1>>

비슷하다, 크다는 범주를 (i)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모두 2항 술어임을 보일 수 있다. Cresswell에서는 large, small의 범주는 술부부사가 slowly가 동사 walk를 수식하는 경우와 같지만, slowly의 범주 <<0,1>,<0,1>>과는 같지 않음만을 말하고 있을 뿐 large나 small의 범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사 키는 [\pm TALL]과 같은 하나의 자질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45) 학생 = ($\{\pm$ MALE], [+HUMAN], [+ANIMATE])
 키 = ($\{\pm$ TALL])
 [red]_N = ($\{+$ RED])

함수표현이 논항과 결합하는 경우, 함수표현은 논항표현이 갖는 외연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므로 논항의 외연과 함수표현의 외연 사이에는 적어도 공유하는 하나의 속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학생의 외연과 크다의 외연 사이에는 공유하는 속성이 없지만, 키와 크다 사이에는 [\pm TALL]이라는 공유하는 속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명사 키는 [\pm TALL]이라는 하나의 속성만을 갖기 때문에 키와 크다가 결합된 키가 크다의 외연은 키의 외연과 동일한 값을 갖는다. 따라서 키가 크다의 의미 표시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

- (46) 키가 크다 = $\{x \mid X \subseteq Y\}$ 혹은 $\{x \mid x \in X \subseteq Y\}$
 단 X: 키의 외연이고 Y: 크다의 외연

(46)에서 보는 것처럼 키의 외연과 크다의 외연 사이에는 키의 외연 X가 크다의 외연 Y의 부분집합 관계를 이루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키가 크다의 의미는 $X \subseteq Y$ 를 만족하는 개체의 집합으로 표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키가 크다는 명제 형식 $X \subseteq Y$ 를 만족하는 개체의 집합임으로서술어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키의 외연은 개체의 집합이고, 크다의 외연은 순서쌍의 집합이므로 이들 두 외연의 결합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이다.

- (47) 키가 크다
 = $\{x \mid X \subseteq \langle x, Y \rangle \mid x \text{는 } Y \text{가 크다}\}$
 = $\{x \mid X \subseteq \{y \mid \langle x, y \rangle \mid y \in Y\} \mid x \text{는 } Y \text{가 크다}\}$
 = $\{x \mid X \subseteq \{y\}\}$
 = $\{x \mid X \subseteq Y\}$

(47)에서 보는 것처럼 개체의 집합이 순서쌍의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집합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크다는 키를 논항으로 취하여 새로운 함수표현 키가 크다가 유도되고, 다시 키가 크다는 이름(예컨대

철수)을 논항으로 취하여 명제가 된다. 이러한 함수-논항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8) a. 철수는 키가 크다
 b. 크다(철수, 키) or Tall(c, H)
 c. $\langle c, H \rangle \in \{ \langle x, Y \rangle | x \text{는 } Y \text{가 크다} \}$
 d. $\langle c, H \rangle \in \{ \langle c, H \rangle, \langle b, X \rangle, \langle a, H \rangle \}$
 e. $c \in \{ x | \langle x, H \rangle \in \{ \langle c, H \rangle, \langle b, X \rangle, \langle a, H \rangle \} \}$
 f. $c \in \{ c, a \}$
 단 c:철수 H:키 Tall:크다

(48c)와 (48d)는 크다를 2항관계로 기술한 것이고, (48e)와 (48f)는 크다를 1항관계로 기술한 것이다.

5. 크다 · 작다의 수식영역

크다, 작다 등이 수식하는 피수식어에 따라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피수식어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한 문장에 두 개 이상의 크다, 작다 등이 쓰이는 경우는 문법적일 경우와 비문법적일 경우가 있다.

- (49) a. 큰 개미는 작은 동물이다.
 b.*큰 개미는 큰 동물이다.

(49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49b)가 비문법적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항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큰 개미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다가 순서쌍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개미의 의미는 몸집이나 체구가 큰 개미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큰 동물의 경우는 큰 개미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시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50a)는 물론이고 (50b) 역시 비문법적이어야 할 것이다.

- (50) a. 참새는 키가 작다.
 b.*동물은 키가 작다.

(50)의 참새나 동물은 특칭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총칭적 의미를 갖

기 때문에 지시류의 복원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50b)가 비문법적이라는 사실은 논항과 함수표현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50a)가 문법적인 것은 명사구 참새가 함수표현 키가 작다의 논항이 되는 경우, 비교 연산자 COMP가 비교대상이 되는 지시류를 유도함으로써, 명사 참새는 키가 작다라는 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갖게 된다. 예컨대 참새를 황새나 두루미에 비교할 때,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을 키가 작다라는 점이라고 한다면, (50a)는 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참새가 총칭적 의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참새는 다른 조류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시류를 갖게 된다. 따라서 키가 작다라는 함수표현은 참새라는 논항과 비교구가 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51) 키가 작다(참새, COMP)

그러나 (50b)의 동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키가 작다는 기준에 따른 비교구를 제시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키가 작다라는 기준에 의하여 동물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동물의 외연은 {{개미},{코끼리},{참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교는 동일한 범주에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집합의 집합과 비교대상이 되는 것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의미상으로도 (50b)가 비문법적인 것은 동물의 외연과 키가 크거나 몸집이 크다는 외연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52) $\{X\} \not\subseteq \{x|X \subseteq Y\}$

단, $\{X\} = \{\{\text{개미}\},\{\text{코끼리}\},\{\text{참새}\},\dots\}$

바꾸어 말하면 키가 크다, 몸집이 작다 등의 외연은 집합이다. 따라서 집합의 집합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도형에서 보는 것처럼 큰 동물의 하위범주는 코끼리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작은 동물의 하위 범주는 개미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큰 코끼리의 하위범주는 개체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 크다, 작다가 코끼리나 개미를 수식할 때에는 비교 연산자 COMP은 지시류를 복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형용사 크다 작다 등이 동물을 수식할 때에는 비교연산자 COMP은 지시류 복원이 불가능함으로 추상적 지시류를 갖게 된다.

(53)

크다 동물		작다 동물	
크다 코끼리	작다 코끼리	크다 개미	작다 개미

즉 크다, 작다 등이 비교구를 갖지 못하는 명사 동물을 수식할 경우에는 비교연산자 COMP는 동물 자체의 비교를 통하여 지시류를 갖게 된다.

(54) 큰 동물 = {x|크다 (동물, COMP)}

즉 동물 자체의 비교는 곧 코끼리류나 개미류의 비교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연산자 COMP을 도입함으로써, 철수는 키가 크다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동물에서도 크다는 2항 술어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큰 개미와 큰 동물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55) a. 큰 개미는 작은 동물이다. ⇒

$\{x|large(ant, Y)\} \subseteq \{x|small(animal, COMP)\}$

b. *큰 개미는 큰 동물이다. ⇒

$\{x|large(ant, Y)\} \not\subseteq \{x|large(animal, COMP)\}$

6.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첫째, 형용사 크다, 작다 등은 2항 술어이며, 둘째, 이들 형용사가 취하는 논항의 구조는 같다, 비슷하다 등의 형용사가 취하는 논항과는 다름을 보았다. 즉 크다, 작다 등의 형용사의 논항은 <개체, 속성>이지만, 비슷하다, 같다 등의 논항구조는 <개체, 개체>인 순서쌍이다. 셋째, 크다, 작다 등이 내부논항만을 갖는 경우 예컨대 키가 크다와 같은 표현은 명제적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함수자 표현으로써 구조상으로는 문장과 유사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서술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어에서 중주어로 다루어 왔던 철수는 키가 크다와 같은 표현에서 키는 주어의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2항 술어의 내부논항에 지나지 않는다. 중주어와 관련된 문제는 논제를 달리하여 다루고자 한다. 넷째, 크다, 작다 등이 수식하는 논항에 따라 지시류의 복원이 다름을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시류의 복원의 목적이 개체의 비교나 속성의 비교로 간주하여 비교 연산자 COMP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추상 연산자의 도입에 의하여 큰 개미는 큰 동물이다와 같은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형용사 논항구조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같다, 비슷하다와 같은 형용사의 논항은 <개체, 개체>인 순서쌍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개체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 (56) a. ?철수는 영화와 비슷하다.
 b. 철수는 영화와 나이가 비슷하다.
 (57) a. ?이 책은 저 책과 같다.
 b. 이 책은 저 책과 크기가 같다.

(56)과 (57)의 비슷하다, 같다는 개체의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개체의 비교는 불가능하고 오직 속성의 비교만 가능하다. 즉 (56a)와 (57a)를 완전한 명제표현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사구 가운데 철수, 영화, 이 책, 저 책과 같은 명사구는 외부논항이 될 수 있지만, 내부논항은 될 수 없다. 그런데 반해서 나이, 크기와 같은 명사구는 내부논항으로 쓰일 뿐 외부논항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외부논항과 외부논항의 상이는 국어의 중주어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수. 1975. 국어 문법론. 서울: 일조각.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한양대학교 출판원.
 안승신. 1996. "제 2 형용사 서술어의 통사구조," 언어, 21-3. 한국언어학회.
 이영현. 1989. "잠재적 부정표현의 Bool 대수적 의미표시," 언어 14. 한국언어학회.
 이영현. 1991. "한국어 제약적 관형어의 λ -범주문법적 의미표시," 애산학보 11.
 이영현. 1993. "한국어의 시간부사와 장소부사의 수식구조와 의미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31.
 이영현. 1995. "수식어의 의미적 영향권에 관한 연구(1)," 언어학 3, 대한언어학회.
 이희승. 1974. 새문법. 서울: 일조각.
 정인승. 1967. 표준문법. 서울: 계몽사.
 최현배. 1971. 우리말본. 서울: 경음사.

- Ades, A. E. and M. J. Steedman. 1982. "On the Order of Words," *Linguistics and Philosophy*, 44-3.
- Cooper, Robin. 1984. *Quantification and Syntactic Theory*.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Co. .
- Cresswell, M. J. 1973. *Logics and Languages*. London: Methuen and Co.
- Cresswell, M. J. 1985. *Adverbial Modification*. Dordrecht: R. Reidel Publishing.
- De bruin, Jos and R. Scha. 1988. "The interpretation of Relational Nouns," *2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NJ: Norristown.
- Gamut. L. T. F. 1991. *Logic, Language, and Meaning*, Vol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ngria, R. and L. M. George. 1993. "Adjective, Nominals, and The Status of Arguments," in *Semantics and the Lexicon*. Dordrecht: Klauber Academic.
- Jespersen, Otto. 1969.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 Kamp, H. and U.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Dordrecht: Klauber Academic.
- Keenan, E. and L. M. Faltz. 1985. *Boolean Semantics for Natural Language*. Dordrecht: D. Reidel Publishing.
- Levin, Beth and Tova R. Rapoport. 1988. "Lexical Subordination," in *CLS 2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Levin, Robert. 1992. *Formal Gramma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ustejovsky, James. 1993. *Semantics and the Lexicon*. Dordrecht: Klauber Academic.
- Stowell, Timothy. 1983. "Subject Across Categories," *Linguistic Review* 2.
- Williams, Edwin.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1.
- Williams, Edwin. 1983. "Syntactic and Semantic Categori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6.
- Zwicky, Arnold. 1985. "How to describe inflections," *Berkely Linguistics Society* 11.